

‘가치 있는 고생’을 꿈꾸며 방송사 정복기

“여보세요,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합격했나! 그래 잘됐네, 잘 됐다, 잘 됐데이...”



토박이 경상도 남자인 아버지도 울먹이며 저의 전화를 받으시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작년 한 해 동안 방송기술직을 준비하면서 구독했던, 방송과기술 월간지에 기고한다고 하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라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꿈만 같은 일이라 무척 설레기도 합니다. 화려한 글솜씨를 자랑하는 선배님들의 기고 글 사이에 제 글이 실릴 생각을 하니 쉽게 운이 띄어지지 않지만, 최대한 꾸밈없이 솔직하게 저의 입사기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원동기 및 준비과정

지금 제가 있는 부서와는 다르지만, 사실 제가 방송사를 지원하게 된 건 방송국의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서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음악동아리에서 드럼을 쳤었는데, 그 당시 콘솔 앞에 서 있는 음향 엔지니어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콘솔을 한 번 만져본 것이 음향 엔지니어를 향한 막연한 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의 지원으로 폴란드에서 공부했을 때도, 졸업논문으로 오케스트라밴드와 함께 음향계측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더욱더 그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SBS의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고, 방송기술직이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경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방법이 될 거라는 확신에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기술직 입사를 목표로 삼은 이후로는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내고는 바로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에 있는 고시원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자격증 학원에 다니면서 전공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분야도 배우고자 방송아카데미에서 촬영과 편집을 배웠습니다. 정신없이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다 보니 약 1년이 지난 지금 SBS의 직원증을 목에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해보면 저는 입사하기 전까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서울에 살면서 고시원 방값, 학원수강료, 식비, 교통비 등등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운 좋게 다니던 학원에서 교재 오·탈자 교정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용돈 벌이를 하면서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인력개발센터를 찾아가 취업훈련을 받으면서 국가의 취업지원금도 운 좋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기회들 덕분에 부모님의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인연 또한 제게 매우 큰 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은 잘되지도 않는 서울말과 사투리를 섞어 쓰는 저를 친근하게 스스로없이 대해주었고, 학원에서 만난 교수님 한 분은 제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주시며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주 가던 문구점 아저씨께서는 반찬이나 간식거리를 매번 챙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외롭고 고될 수 있었던 1년여간의 취업준비를 씩씩하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입사절차

SBS의 입사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역량면접, 합숙평가 및 임원면접, 인턴십 평가로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던 평가절차였지만 짧은 기간 안에 인턴십 평가까지 모두 마쳐야 했기 때문에 전형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인턴십 평가는 각자 배치받은 부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제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었습니다. 최종면접에서 임원분들이 직접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여러 번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적어야 할 분량이 상당히 많았고 질문의 내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하나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니 더욱 쉽게 내용을 써 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SBS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엿볼 수가 있어서 이후의 전형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전공시험과 시사 약술로 나누어졌습니다. 전공시험은 현업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모르는 내용도 많았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안지를 채워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사 약술문제는 평소에 신문을 꾸준히 보고, 두세 줄로 약술하는 연습을 해왔던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량면접은 지원자가 한 명에 면접관 여러 명의 다대일면접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모의면접을 통해 많은 연습을 해봤지만 역시나 실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학문제 푸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한 면접관님께서 Eigen value(고유치)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공업수학시간에 배운 기억은 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에 저는 무척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며 열심히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박 3일의 합숙평가는 매우 힘든 것으로 생각했지만, 뜻밖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면접관들께서 지원자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차례가 넘어갈 때마다 SBS란 회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면접자들로부터 면접 태도나 답변방식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있었던 간단한 술자리를 통해 면접관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던 2박 3일이 되었습니다.

임원면접은 짧지만, 극도로 긴장되는 면접이었습니다. 다대다 면접이었기에 한 명당 주어지는 질문도 2~3개에 그쳤지만, 창사 초기부터 회사를 이끌어오시던 임원분들의 아우라에 무엇을 대답해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처음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울방송(SBS의 옛 명칭)에 오기 위해 서울말을 익힌 지원자 신준호입니다.'라고 크게 소개를 하였더니 부회장님께서 아직 더 많이 익혀야겠다고 하시면서 허허 웃어주셨고 덕분에 한층 긴장을 풀고 답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하는 일

바라고 바라던 합격통보를 받고, 3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쳐 정식사원으로 배치받은 저는, 현재 SBS의 인프라관리팀 송신소에 배치되어 RF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부서 순환의 기회를 통해 나중이라도 음향 관련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애초에 음향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배움에 좀 더 욕심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ATSC 3.0을 바탕으로 하는 UHD 방송 송출이 예정되어 있고, 각 송신소와 중계소에도 그에 맞는 안테나와 송신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RF 업무를 배우려면 지금 송신소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저의 주 업무는 송신소 및 중계소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제



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매번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SBS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커버리지로 하여 총 24개의 송신소 및 중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신소의 인력은 다른 방송사들과는 달리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SBS만의 원격제어시스템과 그를 뒷받침하는 선배님들의 노련한 전문지식이었습니다. SBS는 유일하게 완전한 무인화를 거쳐 모든 송·중계소가 목동 본사의 통합관제실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많은 선배님의 땀과 노력이 희생되기는 했지만, 매우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졌고 타 방송사의 모범사례가 되어 지금도 많은 곳에서 SBS의 원격제어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게 되는 것은 선배님들이 RF, 네트워크, 전기, 소방, 공조, 철탑 등 다방면에 능통한 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력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선배님들의 전문성 덕분에, 저는 언제 이들을 다 배워볼 수 있을지조차 가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께 감히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보고 듣고 공부하는 방송기술인이 되겠습니다.

맺으며

“SBS 신입사원 한 명이 송신소에 와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타 방송국에 입사한 친구가 제게 귀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만큼 제게는 이제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SBS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국 기술선배님들의 고생 덕분에 처음 대한민국의 하늘에 방송국의 전파가 쏘아질 수 있었고, 현재 모든 방송사 선배님들의 고생 덕분에 방송사가 지금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국을 위해 일해주실 미래의 후배님들도, 정말 가치 있는 고생을 할 줄 아는 분이었던 하는 바람을 주재님지만 한번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여기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 두서없는 저의 입사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이 입사기가 선배님들께는 입사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향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방송기술 관련 직무를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는 또 하나의 유익한 조언이 되길 희망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